

대행 스님

한마음이 고정되게 있는 게 아니기에 한마음마저 없다

(지난 호에 이어서)

불(佛)은 뭐냐. 불바퀴는 왜 불바퀴라고 그랬느냐. 그냥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바로 영원하기 때문에 불바퀴라고 했습니다. 불이라고 한 것은 여러분의 생명의 근본, 즉 말하자면 영원한 생명의 근본, 그걸 불이라고 했다 이겁니다. 본래 자성불은 있는 건데, 자기 자성불에서 모든 거를, 나고 드는 것이 전부 그 능력으로 나오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성불은 믿지 않고 저기 계신 딴 부처님을 믿고선 "부처님, 날 좀 잘되게 해 주시오." 하는데 그건 기복이지 공덕이 아니야. 공덕이라는 건 무엇 때문에 공덕인가. 한마음으로 돌아가야 공덕이 아닌가. 나 아님이 없으니까 내가 하지 않는 일이 없고, 내 아픔 아닌 것이 없고, 내 몸 아닌 것이 없는데 어찌 그게 공덕이 안 되겠나. 일체제불과 일체 보살, 역대 조사가, 역대 중생이 진드기 하나 버리지 않고 전부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래서 그 한마음마저 없다는 사실은 한마음이 고정되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부처님께서 한마음을 내실 때에 보살로서 화해서, 법신으로 화하시고 그래서 남이 응해 달라는 대로 응해 주시는 그 한마음이 돼 주시는 그 마음 말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큰 호랑이가, 큰 소가, 큰 코끼리가 또는 독사라는 이름을 가졌어도, 어떤 사람이 백정 노릇을 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아, 부처님한테 귀의해서 내 마음 가운데 항상 넣고 끊어지지 않는 그 마음이면 그대로 한마음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일을 할 적에나 똥을 눌 때나 잠을 잘 때나 일어설 때나 앉을 때나, 바로 내 부처가 내 마음속에 있는 한마음의 그 주인공이라고 생각할 때, 뭐든지 거기다 놓고 갈 때, 모든 걸 놓고 아주 잔잔하게 한데 한생각을 일으키면 그게 법이 된다 이 소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일체제불이 일체 보살이, 일체 조사가 다 그냥 한마음으로 들어서, 한 찰나에 드셔서 그 묘법을 가르쳐 주시고 한 찰나에 나신다 이거예요.

이 묘한 도리를, 이 무심도법(無心道法)을 여러분이 그렇게 갑자기, 도심으로써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터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는 것은 아마 나보다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알기만 하면 뭘 합니까? 행하는 게 문제죠. 백 가지 천 가지를 안다 하더라도 한 가지 행을 못한다면, 그건 한 가지 행하는 것만도 못합니다.





그림 · 최주현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을 해 드렸죠. 지수화풍을 바탕으로 해서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있어서 오신통이라는 것도 거기에 귀결돼 있다고요. 우리가 과거에 살던 그 모두를 숙명통이라고 한다면 오신통은 자동 컴퓨터입니다. 자동 컴퓨터! 거기에서 또 더불어 같이 돌아가는 것이 바로 심안의 눈입니다. 그래서 그 도리를 잘 알아야 천안통이 생기는데 바로 천체망원경이 거기에 해당됩니다만 물질로 된 거는 심안의 눈으로 보는 걸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천이통이라는 것은 지금 말로 무전통신력인데, 한생각에 우주 삼라만상 대천세계를 두루 통신을 하고 가는데 어떻게 감히 물질의 무전통신기가 거길 따라가겠습니까? 인공위성을 띄우고 전파를 통해서 세계를 두루 한다 하더라도 그건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타심통이라 하면은 남의 속을 다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남의 마음만 알면 '도'냐. 아니죠. 우리가 풀 한 포기, 진드기 하나의 마음도 알아야만 되겠죠. 그래서 서로 한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고 서로 면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면 그 얼마나 즐겁고 이 세상이 낙원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비유해서 탐지기라 할 수도 있죠. 인간의 마음이 들어가서 물질로 나오긴 했지만 아니, 내 타심통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리고 신족통 하면 지금의 팩시밀리로 비유해도 되죠. 내 마음이 화(化)해서 원자에서 입자로 화하고 입자에서 분자로 화해서, 안팎을 제도하고 지키고 보호하면서 보신, 법신, 화신이 전부 보호하면서, 불성 자체가 전부 모여서 불바퀴로 돌아가는 거기에 더불어 같이 돌아가는 데 물질인 팩시밀리가 아무리 좋다 한들 그러한 역할을 어찌 따라가겠습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바로 팔만대장경의 증거입니다. 그때 시절에는 그때 시절대로 용어가 달랐고, 지금 시절에는 지금 시절대로 용어가 다릅니다, 뜻은 다 같지마는. 사는 도리도 같습니다마는 그 이름, 용어가 자꾸자꾸 다르게 변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역시 그 용어를 모르는데, 자꾸 옛날에 부처님이 하신 용어를 가지고 가르친다면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금덩어리 보석이라 할지언정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 이 마음 자체가 부처님의 뜻을 저버려서가 아니라 진짜로 부처님의 뜻을, 골수를 알아서 한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지닌다면 구태여….

또 한 가지, 백팔염주를 목에 걸고 다닌다 이럴 때 백팔염주라는 것도 이름입니다. 백팔 번뇌 망상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번뇌 망상이 아니라면 무얼 가지고 공부하겠습니까. 백팔(百八)이라는 건 뭐냐? 백(百)은 무(無)입니다, 무! 팔(八)은 사무(四無) 사유(四有) 한데 합쳐서 무의 세계 유의 세계가 같이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같이 돌아가면서 그 생각 생각에 꼬리가 꼬리를 물고 돌아가는 그것을 망상이라고 합니다. 번뇌 망상이라고 하죠.

일어나는 그 마음이 우리를 부처로 만들 수 있고 법신으로 만들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망상이 아니라 나를 수련시키는 채찍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것이 나오면 허허 웃고 '하! 거기서 나온 거니까, 그놈이 그놈이로구나.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서 너희들 해결해라.' 하고 거기다 놓으면 되지, 거기에 끄달릴 필요가 없어. 여러분은 사람 된 그 마음, 좋고 나쁘고, 나쁘고 좋고 이런 거를 아는, 다스리는 마음이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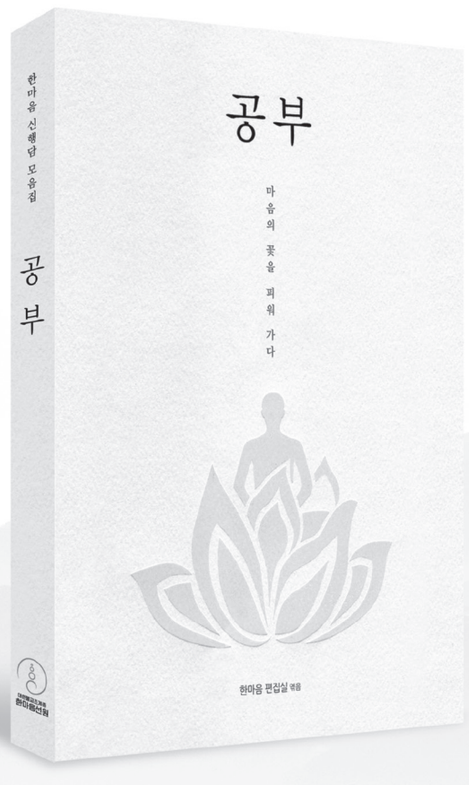
둘이 아닌 도리만 알면, 모두가 어떤 것이 속에서 나오더라도 '아하! 이것은 나를 둥글게 다스리기 위해서 정으로 치는구나. 이건 또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내 마음이 이심전심으로 돌아가서 저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 나를 치는구나. 참 감사하구나.' 하고 감사하게 거기 맡길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남의 탓도 안 되고, 증오도 없고, 배신도 없고, 미움도 없고, 얼굴에 웃음이 띄면서 감사함을 느끼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의 주인공은 '착하고 착하구나. 너는 네가 나온 도를 알고, 네가 행하는 도를 알고, 네가 말하는 그 법을 아는구나.' 하고 이 우주 삼라대천세계의 그 마음들이 한마음으로 구성돼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고 나면서 여러분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죠. 요것 버리고 조것 버리고 다 버린다면 뭐 남는 게 있어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거를 정복하겠습니까? 더럽다고 버리고, 밉다고 버리고, 또 즐겁다고 들이고 이런다면 하나도 없이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귀결돼서 넣고 보니까 나중에 그것을 하나도 버릴 게 없어서 다 나 아님이 없더라.' 할 때까지 우리가 공부해야 합니다.

요새 대구나 저 마산, 울산, 부산 할 것 없이 전부, 그래도 각 지원마다 신도님들이 몇십 명씩은 다 맛을 보고 가는데, 어느 때는 가서 그 맛본 것을 내가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닥쳐오는 모든 괴로움, 병고 또는 가난, 영계성, 유전성, 세균성 등 모든 것을 병으로 알지 말고 재료로 삼아서 거기 놓고 실험을 하면은 그게 체험이 돼요. 하나하나 체험이 되고 그때에 그 맛을 알고 들어간다면 홀연히 내가 밝아지고, 홀연히 밝아지면 '아하! 이게 모두가 독불장군이 없구나. 회사에도 직원이 있으니 사장이 있고, 사장이 있으니 직원이 있구나!' 하고 웃어지죠. 허허허.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보는 대로 느껴지고, 보는 대로 알아지고, 보는 대로 생각이 나면 그냥 제도가 되는 것이고, 부모의 조상이 따로 있고 또는 부처님의 조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성도 한 성이요, 바로 본도 하나라는 것이죠. 알고 보면 부처님이 해골바가지에 큰절을 하신 원인도 자기의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죠. 하나로 돌아가는 이치, 즉 윤회가 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모두가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형

☞ A18면으로 계속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운주사 02-3672-7181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